

- 주요 뉴스: 미국 지역 연은 총채, 물가안정 목표 달성 위해 긴축 기조 유지할 방침
    - 미국 7월 구인건수, 전월비 증가.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
    - ECB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지
    - 독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40년래 최고치.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유도할 가능성
 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지역 연은 총채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
 주가 하락[-1.1%], 달러화 보합[+0.0%], 금리 보합[+0.0bp]
   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3일 연속 하락  
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.7% 하락
  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7월 구인건수에 따른 큰 폭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  
 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  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금리인상 전망이 상충  
 독일은 40년래 최고치 기록한 8월 소비자물가의 여파 등으로 1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49.6원, +2.9원) 0.3% 상승,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8/30일   | 8/29일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8/30일   | 8/29일 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3,986.2 | 4,030.6 | -1.10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3.10%   | 3.10%   | 0bp    |
|    | 유럽   | 419.81  | 422.65  | -0.67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1.51%   | 1.50%   | 1bp    |
|    | 중국   | 3,227.2 | 3,240.7 | -0.42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35bp    | 35bp    | 0bp    |
|    | 일본   | 28,196  | 27,879  | 1.14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74bp    | 71bp    | 3bp    |
|    | 한국   | 2,450.9 | 2,426.9 | 0.99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423     | -  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8.84  | 108.84  | 0.01%  |                 | VIX   | 26.21   | 26.21   | 0.00%  |
|    | 유로화  | 1.0015  | 0.9997  | 0.18% 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91.64   | 97.01   | -5.54% |
|    | 엔화   | 138.79  | 138.72  | -0.05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354.5   | 361.2   | -1.85% |
|    | 위안화  | 6.9114  | 6.9088  | -0.04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724.0 | 1,737.1 | -0.75% |
|    | 원화   | 1,346.7 | 1,350.4 | 0.27%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미국 지역 연은 총재, 물가안정 목표 달성 위해 긴축 기조 유지할 방침

-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 위축을 통한 물가 하락 유도가 가능한 수준까지 단기 금리를 높여야 하며, 이러한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. 연준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이며, 최근 물가상승 압력은 너무 높다고 지적
- 아울러 물가안정과 강력한 노동시장의 동시 달성을 위해 현재 2.25%~2.5%인 정책금리 목표를 3.5%까지 높여야 한다고 발언. 또한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, 금리인하 단행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부연
-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. 특히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경기침체 발생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첨언. 다만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한다고 해도 '08년과 같이 급격한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경제지표가 발표된다면 0.75%p 금리인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. 다만 현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
-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정도로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는 반면, 과도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실업을 역시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 7월 구인건수, 전월비 증가.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

- 해당 건수는 1123.9만건으로 전월(1104만건) 및 예상치(1047만건) 상회. FWD BOND'S의 Christopher Rupkey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 시 연준의 강력한 선제적 통화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

### ■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, 전월비 개선. 4개월 만에 상승 전환

- 해당 지수는 103.2를 기록하여 전월(95.3) 및 예상치(97.7) 보다 높은 수준. 컨퍼런스보드의 Lynn Franco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비에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, 이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은 경제 성장에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

## ■ ECB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지

- 네덜란드 중앙은행 놇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금리의 정상화 및 선제적 긴축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.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뮐러 총재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.75%p 인상도 고려 대상 중 하나이며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강조
-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는 경기침체 우려를 핑계로 추가 금리인상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.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으면,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

## ■ 독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40년래 최고치.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유도할 가능성

- 해당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8.8%로 전월(8.5%) 대비 상승. 러-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. VP Bank의 Thomas Gitzel은 ECB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

## ■ 중국 대형은행, 상반기 이익 증가세 둔화. 부동산 관련 부실대출은 증가

- 공상은행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.9~6.3%로 전반기 대비 낮은 수준. 예대금리 마진 축소 등으로 이익 둔화세는 지속될 가능성. 한편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의 부동산 부실대출 비율이 5.47%로 전기(4.79%) 대비 상승했으며, 이러한 상황은 여타 대형은행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생

## ■ 일본 재무부, '23 회계연도의 부채 이자비용 계산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가정

- 금년 1.2%였던 해당 금리를 1.3%로 높였는데, 이는 장기금리 상승을 가정했다고 설명. 장기금리 상승을 가정한 것은 '07 회계연도 이후 처음. 한편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부채 고려 시 정부의 이자지급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(전년동월비): 18.6%, 5월(20.5%), 예상치(19.5%)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3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ADP 민간고용,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미국과 유럽 경제, 인플레이션 억제 여파로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- Financial Times

(Tough economic times lie ahead)

- 미국과 유로존의 명목 및 근원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을 장기간 상회. 이에 최근 연준 및 ECB 위원들은 고물가 통제 의지를 강조. 고물가와 함께 견조한 임금 상승세,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연준과 ECB는 물가안정 노력은 더욱 강화
-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둔화 및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. 특히 통화당국이 모두 단기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
- 한편 유럽은 미국보다 경기침체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.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시장 충격이 핵심 원인이기에, 통화긴축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. 오히려 ECB는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야만 여건에 직면

### ■ 미국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, 경기침체 위험 반영은 부족한 상황 - 블룸버그

(Junk Bond Traders Ought to Check In With Economists)

- 최근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, 경기침체 확률은 50%. 그러나 경기침체 위험 증가 시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는 452bp로 지난 12년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
-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, 중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. 위험이 큰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는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

### ■ 미국 주택경기, 임금상승세 고려 시 심각한 둔화 가능성은 낮은 편 - 블룸버그

(Don't Sweat a Housing Crash as Long as Wages Are Rising)

### ■ 미국 은행권,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상환 능력 변화 여부를 경계할 필요 - 블룸버그

(Banks Should Worry About Inflation as Much as Jobs)

### ■ 독일 정부의 대규모 전력기업 지원, 전기가격 상승 방조를 초래 - Financial Times

(Energy prices: volatility of German power smacks of market dislocatio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